

소련의 대학도서관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SSR)

Vyacheslav V. Mosyagin 저

김 교 감 역

〈전국대학교도서관 부관장〉

소련의 대학도서관

1. 개 요
2. 소련대학도서관의 일반현황
3. 소련대학도서관의 부서와 직원
4. 소련대학도서관의 수서정책
5. 소련대학도서관의 전산화
6. 결론

— 소련의 대학도서관 —

다음의 글은 제57차 IFLA총회 제1분과의 대학도서관과 일반연구도서관 Section에서 모스크바대학 과학도서관장인 Vyacheslav V. Mosyagin씨가 발표한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SSR”을 번역한 것이다.

1. 개 요

이 글은 소련에 있어서의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시한 것이다. 최고와 최대의 도서관을 열거하였고 대학도서관의 유형적 구조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글에 있어서 중요관점은 오늘의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의 전산화와 수서에 관한 문제이다.

2. 소련대학도서관의 일반현황

소련연방에는 900이 넘는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 62개가 종합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사는 거의가 다 그 대학 자체의 역

사와 일치되는데 간혹 몇년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예를들면 모스크바대학은 1755년에 개교했는데 그 도서관은 1756년에 개관했다. 소련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들은 1579년 설립된 Vilnius대학과 1661년에 설립된 Lvov대학, 1755년에 설립된 Moscow대학, 1802년에 설립된 Tartu대학, 1805년에 설립된 Kharkov대학, 1819년에 설립된 Leningrad대학, 1834년에 설립된 Kiev대학, 1865년에 설립된 Odessa대학, 1875년에 설립된 Chernovtsy대학, 1880년에 설립된 Tomsk대학, 1909년에 설립된 Saratov대학, 1915년에 설립된 Rostov대학 그리고 1916년에 설립된 Perm대학들이다. 1917년이후부터 새로운 대학의 출현바람이 있었는데 1918년에 Voronezh대학, Dniepropetrovsk대학, Irkutsk대학, 그리고 Nizhnyovgorod대학과 1919년 Baku대학과 Latvia대학 그리고 1920년에 Fareast대학과 Yerevan대학 Tashkent대학 그리고 Urals대학등이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들은 계속해서 설립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도 단순히 기준단과대학의 이름을 새로 바꾸는 정도로 변신하기도 했다. 대학도서관들은 그 조직에 있어서는 대단히 비슷하나 장서면에 있어서는 350,000권에서 800만권까지 그들의 소장자료의 규모와 가치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정적인 봉사대상자수는 3,000명에서 65,000명에 이른다. 소련에서 가장 큰 대학도서관인 모스크바대학에 있어서는 장서 800만권에 65,000명에 달하는 고정이용자가 있고 레닌그라드대학도서관은 장서 630만권에

37,000명의 이용자, Vilnius대학도서관은 480만권에 23,000명 Kazan 대학도서관은 480만권에 20,000명 Tartu대학도서관은 430만권에 18,000명, Tomsk대학도서관은 370만권에 17,000명 Kiev대학도서관은 350만권에 26,000명, Tbilisi대학도서관은 350만권에 20,000명 Odessa대학도서관은 350만권에 16,000명 Kharkov대학도서관은 340만권에 18,000명, Tashkent대학도서관은 330만권에 20,000명, 그리고 Irkutsk대학도서관은 330만권에 15,000명의 고정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3. 대학도서관의 부서와 직원

이들의 발전과정을 보면 대학도서관은 점차적으로 중앙집중조직구조로 접근하여 가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중앙도서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산형태인 과별도서관이나 학생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문학관계자료에서부터 대학에 있어서의 모든 연구주제까지를 포함하고 학부나 과별도서관은 그들자체의 주제자료들에 대한 비교적 좁은 범위의 자료를 소장한 반면 학생도서관은 단순히 교과서만을 소장했다. 이러한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어서 여러 수준의 독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구입과 등록이 중복되어 시간과 돈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중앙경영화는 현재 하나의 기본이 되었다. 대학속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하나의 본부 -이사회-에 의해서 통계를 받는다. 주문과 등록 및 다른 모든 기능외에 재정 또한 중앙경영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다음의 부서들로 나누워진다.

주문부 : 소련과 다른 외국문헌을 취급하고, 서고 관리부, 도서교환부

등록부 : 목록 그리고 분류담당

봉사부 : 열람실 이용자와 책을 대출해 주는 일, 교과서부, 관내교환부

책인과 질의응답후 책의 보수와 수리부서 등이다.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부가 있었다. 지난 몇년동안 많은 도

서관은 수서업무와 서지업무를 컴퓨터화 하고 있다. 소련대학도서관들은 6,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의 63%는 고학력이고 4%는 중등학력이다. 다소 수준이 낮고 직원수가 많은 이유는 자동화와 컴퓨터화된 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학력 직원들은 대학졸업자이며 그중 몇명은 문학단체로부터 도서관 사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학졸업생들은 사서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문학단체 출신의 사서들은 전문화된 과학지식이 부족하다. 단지 일부대학(Azerbaijan, Nilnius, Dagestan, Latvia, Turkmenia, Kishinev, 그리고 Yerevan)만이 도서관학과와 서지학의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인문단체와 과학단체들에 의해서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대학도서관의 수서정책

자연적으로 소련 대학도서관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든 기본 연구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에게 자료들을 빨리 그리고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일반 연구도서관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있는데 예를들면 학문의 급속한 진보와 출판된 자료들의 엄청난 양 더욱 세분화된 전문성과 더욱 방대해진 지식에의 통합, 과학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조들의 계속적인 출현 등이다. 동시에 소련대학도서관들은 다른나라 도서관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판사와 도서무역이 교과서와 필요한 문헌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스스로가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서들의 각 한 권씩을 얻어주어야만 했다. 예를들면 모스크바대학 도서관은 여러 학부에서 교련(교양)교육을 위해 어떤 간행물의 똑같은 책을 1,000권이상 사야했는데 이 결과 서고의 모든책의 10%정도는 교과서로 채워졌다. 많이 사용되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제도로 유지되었다.

흥미있는 소설과 인기있는 문학서적은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연구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여가에 필요한 요구를 만족시키

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책들은 모스크바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4%에 해당한다.

지난 몇년동안 책을 구하는 어려움과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소련의 관습과 다른나라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므로 소련과 외국문헌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1986년까지 소련문헌을 구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매우 제한된 수의 책과 정기간행물이 출판되었고 가격도 또한 저렴하였다.

“도서수집소”라 불리는 곳을 통한 중앙집중주문과 구매제도는 그런대로 잘 유지되었다. 또한 32개의 대학도서관은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들을 한권씩 갖게 되었다. 모스크바대학도서관은 앞으로 무슨 책이 출판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All-union Book chamber” 카탈로그를 무료로 받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책과 간행물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물론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가격이 올랐으며 새로운 출판사도 많이 생겨났다. (출판사들이 무엇을 출판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다) 현재는 많은 출판물들을 중앙주문제도를 통해서 구입할 수 없다. 그결과 대학들은 그들의 자료를 보충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들의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까를 결정해야만 한다. 소련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외국서적을 얻는데 대한 어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루우블화를 바꿀 수 없다는 어려움이 그것이다. 도서구입을 위한 경화(硬化)가 정부에 의해서 아주 약간 주어지지만 어떤 새로운 대학도서관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경화에 대한 정부독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도 다른 도서관이나 대학들은 그 돈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

국제서적교환제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화부족으로 소련에서는 이 제도야말로 서적교환뿐 아니라 경화로 외국문헌을 사는 기회를 넓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스크바대학은 약 1,000파아트너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약 25,000건의 문헌을

발송하고 약 1,000건을 받는다. 외국서적의 약 40%를 매년 국제교환제도를 통해서 조달한다.

5.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오늘날 도서관 기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도달한다. 이점에 있어서 소련에서의 대학도서관과 다른 중요도서관은 불행하게도 세계 수준에 뒤떨어져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나라의 컴퓨터 기술부족과 잘못된 정보정책이다. 약 15~20년전에 많은 재정이 커다란 도서관보다도 과학과 기술정보를 위한 “All union Institute and International center”와 같은 중요센터를 세우는데 소요되었다. 그 결과 서적과 간행물들과 같은 정보의 1차자료와 간행물들의 서지데이터 같은 2차자료의 획득에 대한 차이가 생겨났다. 단지 몇년전부터 소련내의 몇몇 대학에서 컴퓨터를 취득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고등교육기관의 중요한 도서관에서조차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컴퓨터화가 대학행정의 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으므로써 컴퓨터화란 대학 컴퓨터 센터에서 다른 중간적인 일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잘못 믿게 되었다. 커다란 정보은행의 조직과 사용, 수많은 터미날에 필요한 back-up(지원)들이 전문화된 도서컴퓨터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산화는 Vilnius대학, Voronezh대학, Grodno대학, Kazan대학, Latvia대학, Novosibirsk대학, tartu대학 그리고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스크바 대학도서관을 예로 들자.

1987년 이래로 전문 프로그래머와 도서관원이 있는 부가 수서와 색인(서지봉사) 서비스를 컴퓨터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목적은 세계의 다른 대학의 업적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다. 그 결과 MARC형식을 이용한 색인 데이터저장 시스템이 개발되어 어떤 표제어나 어떤 단어로써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software시스템을 곧바로 들여

오는 결과를 낳았다. MARC가 소련어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은 방대한 양의 프로그래밍이 요구된다. 1990년을 전후하여 출판된 모든 새로운 책들은 검색시스템을 갖춘 전자카드로그에 입력되어 다양한 도서관기능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도서관은 모든 서지입력에 필요한 장비와 터미날이 불충분하다. 미래에 도서관이 충분한 장비를 갖게 되면 독자들은 1990년도에 시작된 완전한 전자카드로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일반적으로 소련대학과 다른 도서관의 단점과 문

제를 분석한다면 오늘날 첫번째로 현대화된 장비 공급물자와 재정이다. 약 5-6년전만해도 내생각으로는 도서관의 주된 단점은 이념의 과도한 영향이었다. 많은 정치문헌들이 특별한 목적을 띠고 공급되었으며 이념적인 이유로 어떤 부분의 카드로그들은 독자에게 열람이 금지되었고 도서관들은 정부 정치인들의 저서를 방대하고 불필요하도록 많이 샀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며 도서관의 주된 임무는 이념을 추구하는데 있지않다는 것이라는 일은 매우 흐릿한 일이다. 내 희망으로는 이런 단점은 과거로 족하다. 현재의 어려움은 돈과 관련되어있다. 충분치 못한 장비, 낮은 임금, 도서관의 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다. 물론 그 해답은 나라 경제의 회복에 달려있다.

世界圖書館思想史

朴尙均 編著 A5版 · 348쪽 · 8,000원

이 책에서는 近代圖書館이 知識의 萬人共有 思想을 가지고 人文主義 계보를 형성했던 先驅者들의 業績에 의하여 出現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開化期에 있어서 兪吉濬 等 民族 先覺者들의 韓國 近代圖書館思想의 受容, 民族 圖書館運動의 展開過程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는 오늘의 우리 도서관인들에게 自己學問과 職業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북돋아 주려는 著者의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民族文化社

서울 중구 오장동 139-11

TEL 273-0489, 274-5997